

슈틸리케호 남은 5경기 중 4승해야 안정권

러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반환점

우즈벡 2-1 꺾고 조 2위 탈환

승점 12점 더 확보해야 자력 진출

수비 조직력·체력 저하 극복 과제



‘승점 22를 향해 뛰어라!’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의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전히 믿음직한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며 ‘고난의 길’을 예고

하고 있다.

우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1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5차전 홈경기에서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결승골로 2-1 역전승을 거뒀다.

우즈베키스탄전을 앞두고 최종예선 4경기 동안 승점 7을 쌓아 조3위로 밀렸던 한국은 이번 승리로 우즈베키스탄(승점 9)을 끌어내리고 월드컵 본선 직행권이 주어지는 조 2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란이 3승2무(승점 11)로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한국(3승1무1패·승점 10)과 우즈베키스탄(3승2패·승점 9)이 치열하게 따라붙는 형국이다.

1~3위 팀까지 박빙의 승점 경쟁을 펼치는 터라 ‘살얼음’ 조2위인 한국은 남은 5경기에서 처절한 생존게임이 불가피해졌다.

◇ ‘승점 22점을 확보하라!’ = 슈틸리케 감독은 월드컵 본선 진출에 필요한 승점을 22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으로선 목표치의 45%를 완수한 상태다.

이제 남은 5경기에서 승점 12 이상을 따내는 게 대표팀의 목표다. 그러기 위해선 4승1패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3승2무도 위험할 수 있다.

한국은 내년 3월 23일 중국과 원정으로 최종예선 6차전을 펼치고, 곧바로 내년 3월 28일 시리아와 홈에서 7차전을 치른다.

또 내년 6월 13일 카타르와 원정으로 8차전이 예정돼 있다. 한국은 내년 8월 31일 홈에서 이란과 9차전에서 맞붙은 뒤 9월 5일 원정으로 우즈베키스탄과 10차전 최종전을 통해 월드컵 본선행 티켓의 향방을 결정한다.

공교롭게도 가장 꺾고러온 상대인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을 최종예선 막판에 연달아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6~8차전 상대인 중국, 시리아, 카타르를 모두 이겨야만 마음 편하게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을 상대할 수 있다.

◇ ‘초반 실점은 줄이고…막판 득점은 늘리고’ = 5경기를 치르면서 한국은 8골(상대 자책골 1골 포함)을 득점하며 경기당 평균 1.6골을 작성했다.

이는 조 1위 이란(경기당 평균 0.8골)과 조3위 우즈베키스탄(경기당 평균 1골)을 앞서는 기록이다.

우즈베키스탄과 5차전에서 짜릿한 역전 결승골을 터트린 구자철이 2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했고 남태희(레쿠아) 등 총 6명이 득점포를 가동했다.

득점은 최종예선 A조에서 다투는 6개 팀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실점 역시 많았다.

한국은 5경기 동안 무려 6실점했다. 이는 최종예선 A조 5위 카타르와(승점 4) ‘꼴찌’ 중국(승점 2)과 같은 실점이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중간 순위

11월16일 0시(한국시간) 현재

A조

	승	무	패	득실차	승점
이란	3	2	0	4	11
대한민국	3	1	1	2	10
우즈베키스탄	3	0	2	2	9
시리아	1	2	2	-1	5
카타르	1	1	3	-3	4
중국	0	2	3	-4	2

자료/FIFA

연합뉴스

최종예선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대표팀의 좌우 풀백을 담당했던 유럽과 선수들이 소속팀의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며 벌어진 ‘측면 풀백 품귀 현상’도 한몫을 했다.

결국 슈틸리케 감독은 중앙 수비 자원인 장현수(광저우 푸리)를 오른쪽 풀백으로 가용하고, 오른쪽 풀백 전문 선수를 왼쪽 풀백으로 돌려막아야 했다.

조직력이 생명인 포백라인이 자주 바뀌자 안정성이 떨어졌고, 어슬픈 실수로 실점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졌다.

‘명지대 기록정보대학원 신문선축구연구소’가 대표팀의 경기를 분석한 결과 최종예선 5경기를 치르면서 내준 6골 가운데 3골을 전반 15~30분대에 실점했다.

경기 초반 위기가 오거나 실점하면 급격하게 무너지는 수비 조직력이 치명적 약점이 됐다. 이는 실점에 대한 수비진들의 부담감이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다.

득점도 최종예선 A조에서 가장 많은 8골이나 넣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대표팀은 최종예선 4차전까지 전·후반이 끝날 시점인 전반 30~45분, 후반 35~45분대에 득점이 없었다.

우즈베키스탄과 최종예선 5차전에서 후반 40분 구자철이 역전 결승골을 터트린 게 유일한 후반 막판 득점으로 남았다.

결국 주요 유럽과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풀타임 출전의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경기 후반부에 체력 문제를 드러냈다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일본, 사우디 꺾고 B조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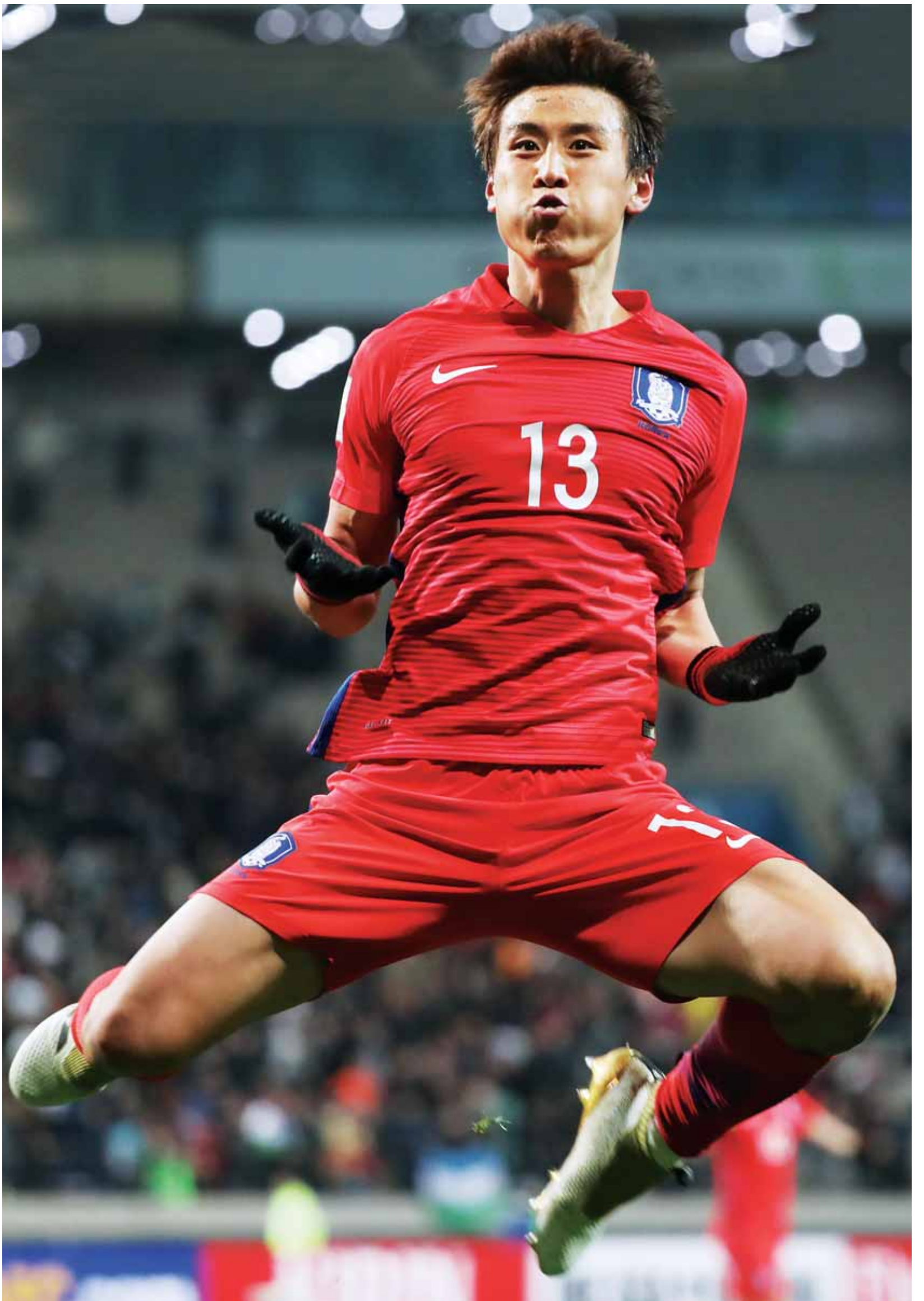
일본이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B조에서 선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었다.

일본은 15일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B조 5차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홈경기에서 2-1로 이겼다.

직전 경기까지 B조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승점 10), 호주가 2위(승점 8), 일본이 3위(승점 7)였다. 일본이 이날 선두 사우디아라비아를 잡으면서 승점에서 양 팀이 갈라졌지만, 골득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골 앞서 선두를 유지했다.

호주는 B조 최하위 태국과 2-2로 비기면서 승점 9를 기록, 일본에 2위 자리를 내줬다.

/연합뉴스



역전골 환호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5차전 한국-우즈베키스탄의 경기 후반전. 한국 구자철이 역전골을 성공 시킨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KLPGA 상금 210억 호황…캐디 주머니도 ‘두둑’

기본급 4천만원 넘고 상금 보너스까지…7승 박성현 캐디 1억 육박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는 올해 210억 원의 총상금을 걸고 33개 대회를 치렀다. 사상 최대 규모다.

상금 10억 원을 넘긴 선수가 2명이나 나왔다. 지금까지 시즌 상금 10억 원을 넘긴 선수는 2014년 김효주(21) 빼곤 없었다.

이뿐 아니다. 9명이 상금 수입 5억 원을 넘겼다. 1억 원을 넘게 번 선수가 무려 57명에 이르렀다.

이런 사상 최고 호황 덕에 선수를 보좌한 캐디들 호주머니도 두둑해졌다.

13억 원이 넘는 상금을 번 박성현(23)의 캐디 장중학 씨는 사상 두 번째로 역대 수입을 올렸다.

국내에서 캐디로는 처음 수입 1억 원을 돌파한 이는 2014년 김효주의 백을 땀던 서정우 씨다. 장

씨는 서 씨 수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대개 프로 선수 캐디 급료는 대회당 130만 원에서 150만 원이다. 30차례가량 대회를 치른 선수의 백을 시킨 내내 땀만 4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나 진짜 수입은 선수 성적에 따라 받는 보너스다.

보너스는 우승하면 우승 상금의 10%, 10위 이내면 5% 이내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7승을 올린 박성현은 우승 상금만 9억 원을 넘겼다. 우승 보너스를 상금의 10%를 받았다면 장

씨는 우승 보너스로 1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장 씨는 정확한 수입은 밝히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돈을 번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 씨는

작년 하나은행 챔피언십부터 박성현과 인연을 맺어 이번 시즌 내내 호흡을 맞췄다.

장 씨처럼 보너스만 1억 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올리지는 못했어도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선수 백을 시킨 내내 맨 전문 캐디들은 대부분 수천만 원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급’만 4천만 원이 넘고 성적에 따른 보너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적지 않은 수입에 투어 프로 선수 전문 캐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투어 프로 전문 캐디가 인기 직업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는 투어 프로 선수 캐디를 아예 전업으로 삼는 전문 캐디가 50여 명에 이른다.

프로 지망생이나 레슨 프로로 활동하다 전문 캐디로 나선 이들이 많다.

/연합뉴스



나랑 같이 축구할텐가



볼트, 내년 도르트문트서 훈련…박주호 “재밌는 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자메이카·왼쪽)는 최근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에서 축구 훈련을 한다고 밝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볼트는 2016~2017시즌이 끝난 내년 상반기에 도르트문트팀 훈련에 참가해 다른 선수들과 함께 뛸 것으로 보인다.

축구대표팀 풀백이자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는 박주호(29·오른쪽)는 볼트의 팀 훈련 합류 소식에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그는 1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우즈베키스탄전을 마친 뒤 “보도를 통해 볼트가 우리 구단에서 훈련한다는 것을 들었다. 굉장히 재밌는 일이다”라며 웃었다.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우사인 볼트에게 스피드 내는 방법을 배우고 싶지만, 내 주력 한계치는 정해져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주호와 볼트의 만남 가능성은 이적시장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박주호는 이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부상 때문에 실전 경기에 거의 뛰지 못했다. 최근에도 백업으로서 중요하지 않은 경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박주호는 이적 가능성을 묻는 말에 “아직 구단과 이야기한 것이 없다”면서도 “여러 가능성이 있다. 출전 기회가 없다면 이적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대표팀에 합류한 뒤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3월 대표팀에 뽑힌 뒤 약 8개월 만에 태극 마크를 달았다.

오랜만에 돌아온 박주호는 우즈베키스탄전에 맹활약했다. 0-1로 뒤지던 후반 40분 남태희(레쿠아)의 동점 헤딩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